

4·10 총선 당선인에게 바란다

“제주 발전과 도민 행복 위해 갈등·대립 조정 역할 해야”

“제주관광 미래 고민하길”
여행업계 양영석씨

“지속가능 농업에 관심”
문병철 한농연도연합회장

“기업인 체감정책 절실”
성상훈 제주중소기업회장

“복합문화공간 조성 관심”
김선영 제주예총회장

“일자리 창출 정책 지원”
한승욱 대학생

“주민 삶의 질 향상 노력”
이영웅 환경연합사무처장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제주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제주관광이 어려움에 직면했다.



농업은 먹거리산업으로서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기후



최근 중소기업인들은 세계 경제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국내 경기 불안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전국적으로 문화예술 관련 예산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예술을 통해 얻게 되는 사회문화적 이익이 많다는 점을 알았



취업 기회가 부족하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젊은 세대의 경제적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정적



총선 기간 수많은 선거 공약들이 제시되었고, 시민사회의 공약정책 제안에도 후보들은 수용 여부를 밝힌



코로나 이후 가장 달라진 부분은 여행 방식이 단체여행의 비중이 줄고 개별여행 비중이 커졌다는 점이다. 내국인 관광객도 줄고 수익성이 적은 개별여행이 늘면서 제주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체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지만 자구책을 찾으면서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농업·농촌은 점차 피폐해지고 있다. 고령화에도 일손 구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인건비도 비싸졌다. 농산물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외국산으로 대체하는 등 정책으로 희망을 빼앗아 가는 것이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농업, 농가소득 보장을 통한 농업·농촌이 될 수 있도록 당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청한다.

제주관광의 미래를 위한 고민을 함께하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제주도당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방문해 ‘제22대 총선 중소기업 정책과제 301개’ 등을 전달하고 총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더 넓은 경제영토에서 신나게 일할 수 있게 만들어 달라라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총선 이후 꾸러질 국회에서는 제안받은 정책들을 잘 검토해 중소기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많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직면한 현실이다. 고등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학비와 생활비 부담은 이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학비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공부 병행은 쉽지않은 일이다. 장학금과 교육지원 프로그램 다양화가 필요 시점이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에 담아주기 를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역할 중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집단에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당선인은 제주 제2공화국 문제를 포함한 제주의 주요 현안들로 인해 상충하는 이해 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제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이다.

정치적 역할 중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집단에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당선인은 제주 제2공화국 문제를 포함한 제주의 주요 현안들로 인해 상충하는 이해 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제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이다.

정치적 역할 중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집단에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당선인은 제주 제2공화국 문제를 포함한 제주의 주요 현안들로 인해 상충하는 이해 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제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이다.

정치적 역할 중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집단에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당선인은 제주 제2공화국 문제를 포함한 제주의 주요 현안들로 인해 상충하는 이해 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제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이다.

정치적 역할 중에는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집단에서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 당선인은 제주 제2공화국 문제를 포함한 제주의 주요 현안들로 인해 상충하는 이해 관계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제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이다.

■ 제주도의원 보궐선거 / 제주시 아라동을 양영수 당선인

“주민 섬기고 명품 아라동 만들기 앞장설 것”



양영수 당선인이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은 뒤 손을 들어 답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의원 제주시 아라동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영수 후보(진보당)는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남 없이 뛰겠다”고 다짐했다. 양 후보는 선거 다음날인 11일 당선인 확정되자 이 같은 소감을

밝혔다. 양 후보는 “이번 선거 결과를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받아 들인다”면서 “아라2동, 영평, 월평, 남 없이 뛰겠다”고 다짐했다. 양 후보는 “지역 규모에 비해 열

악한 정주여건을 반드시 개선할 것”이라며 선거 공약인 ▷열선 설치 ▷공공도서관 건립 ▷어르신 무료 이불 빨래 ▷상급종합병원 지정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대 ▷공공목욕탕 설치 ▷등하교 교통난 해결 등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후보는 “지역주민을 섬기고 지키는 도의원, 과감하게 실천하는 도의원이 되겠다”면서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제주, 명품 아라동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성원과 지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다”며 “변함 없이 성실하고 겸손하게 지역구석구석을 누비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서기기자

선거 끝?... 고소·고발전 남았다

제주시갑 선거구 문대림-고광철 선거 후유증 재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것 같았던 올해 제주지역 총선도 선거 막바지 후보들간 고발이 어김없이 이어지며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 적잖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후보 간 고발 사태는 제주시갑 선거구에서 벌어졌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고발하자, 문 후보 측도 맞고발로 대응하며 사태가 확산했다. 고 후보는 총선을 이틀 앞둔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임과 이해관계 충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문 후보를 제주시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 후보가 JDC 이사장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인사이자 친분관계가 두터운 비상임이사 A씨와 공모해 일감을 받주하고 이 사업을 A씨 남편 명의로 수주한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공생관계 및 유착관계를 수사해달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이른날 고 후보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바로 반격했다. 문 후보 측은 “고 후보가 문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근거도 없이 문 후보가 JDC 이사장 재직 시 비리 혐의가

있다고 비방했지만 감사원 감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양 측 고발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사·사법당국의 최종 판단에 도민들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4년 전 총선에서도 각 후보 진영간 고발이 잇따랐다. 이 중 일부는 무혐의로 끝나 근거 없는 네거티브였다가 것이 드러났지만 일부는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제주시갑 선거구에 출마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4·3 추념식 참석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돼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우리는 하나 영원한 대고인

고 제21회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 체육대회

· 일 시: 2024년 4월 14일 (일) 개회식 10:00 | · 장소: 모교운동장 (우천시 송악관)

총동창회장 김창성

역대회장

- 초 대 (故)이문석 (1회) · 11 대 문대용 (17회)
- 2 대 (故)김정호 (1회) · 12 대 김성도 (19회)
- 3 대 허기화 (5회) · 13 대 이창철 (21회)
- 4 대 김정전 (4회) · 14 대 허승권 (23회)
- 5,6 대 양신하 (5회) · 15 대 이문호 (25회)
- 7 대 (故)문태수 (4회) · 16 대 이윤명 (25회)
- 8 대 문공일 (4회) · 17 대 양창선 (27회)
- 9 대 이문웅 (8회) · 18 대 이경철 (29회)
- 10 대 (故)정재수 (11회)

총동창회 임원

- 회 장 김창성 (30회)
- 직 전 회 장 이경철 (29회)
- 감 사 이승돌 (29회) 이 승 익 (32회)
- 상 임 부 회 장 강신보 (31회)
- 대외협력부회장 김정현 (29회) 부 장 오 광 석 (37회)
- 기획부회장 박정근 (31회) 부 장 문 석 전 (37회)
- 조직 1 부 회장 박정영 (33회) 부 장 김 충 근 (38회)
- 조직 2 부 회장 정영웅 (33회) 부 장 라 희 용 (39회)
- 체육 1 부 회장 강영철 (34회) 부 장 이 훈 (39회)
- 체육 2 부 회장 양상철 (34회) 부 장 황보경남 (39회)
- 설 외 부 회장 이경준 (34회) 부 장 이 영 석 (40회)
- 문화 부 회장 허창윤 (35회) 부 장 고 순 신 (40회)
- 홍보 부 회장 이창수 (35회) 부 장 오 윤 석 (41회)
- 사 업 부 회장 강동수 (36회) 부 장 김 상 균 (41회)
- 사 무 국 장 고 석 중 (36회) 차 장 고민철 (38회), 허중훈 (46회)

운영위원

기 별	회 장	총 무	기 별	회 장	총 무
· 23회	이 봉 근	강 영 준	· 33회	윤 덕 철	김 영 민
· 24회	이 상 석	고 정 대	· 34회	김 범 규	송 승 철
· 25회	문 태 오	영 대 호	· 35회	김 대 건	김 오 대
· 26회	김 창 민	이 문 호	· 36회	김 병 철	오 대 승
· 27회	허 영 준	이 승 기	· 37회	하 성 용	양 성 철
· 28회	송 호 림	정 영 철	· 38회	김 진 성	주 승 신
· 29회	이 성 문	허 공 만	· 39회	김 성 상	유 기 동
· 30회	이 광 진	허 공 만	· 40회	고 순 신	이 동 호
· 31회	강 창 욱	이 영 진	· 41회	김 승 기	김 동 민
· 32회	김 영 삼	김 하 규	· 46회	백 춘 도	허 재 석

재경 향우회장 문용만 (31회) 재부산·중·고동문회장 이상화 (27회)

연락처 · 회 장 김창성 010-3698-3248
· 사무국장 고석중 010-3696-4564

대정고등학교총동창회 회장 김창성